**성령충만을 사모합시다 (2)**

**<사도행전 2장 32-42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백매치가 있었는데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지난 월드컵 우승팀이기도 하고, 토레스, 잉예스타, 사비 알론소, 카시아스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덜란드팀에도 반 페르시나 로벤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만, 선수들 기량만으로만 보면 확실히 스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5대 1로 크게 이겼습니다.

전반전에는 먼저 스페인이 한 골을 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대로 스페인이 이기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 막판에 네덜란드 골잡이 반 페르시가 한 골을 만회하며 전반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 네덜란드 공격수 로벤이 한 골을 더 넣더니만, 이후 경기의 흐름은 급격히 네덜란드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은 계속해서 실책을 해댔고, 반면 네덜란드 선수들은 마치 신들린 듯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이 경기 후반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걸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네덜란드 선수들조차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의 후반전 경기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충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어딘가로부터 자기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옵니다. 어느 순간 긴장감과 두려움 대신 놀라운 자유함과 평안함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 하던 일들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고 즐겁게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충만’은 “그리스도인의 후반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두려움에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그처럼 능력있는 증인들로 변화되리라고 예수님 외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며 저주하던 사람들이 얼마 후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주의 구원을 증거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완전히 변화된 그들 인생의 후반전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성령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일단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자, 그들은 실로 엄청난 삶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충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성령충만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태만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저는 참으로 단순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령충만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노력이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도행전의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순절 성령강림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세상에 더 머무시며 제자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행해진 고도로 집중된 40일간의 성경공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에 앞서 예수님에 의해 행해진 또 하나의 준비는 제자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당부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예루살렘인가?” 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서 더 중요한 구절은 “떠나지 말고” 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루살렘 근교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여러모로 달갑지 않은 예루살렘을 떠나 제각각 흩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다면 성령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분명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당부하신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라, 흩어지지 말아라, 지금처럼 함께 모여 있어라, 그리고 함께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당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14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좋아서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어색함과 인간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모였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이미 분열과 상처, 배신, 서로의 바닥난 인간성을 경험한 사이였습니다. 내 치부를 아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는다는 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후에 예루살렘교회의 기둥으로 부상하게 되는 예수님의 두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요7:5). 그러니 이 두 그룹 사이에도 힌동안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순절까지는 열흘,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단 며칠이 될 지, 아니면 훨씬 더 길어질 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아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주된 화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끼니 때가 되면 함께 식사를 했겠지요? 약 사십 일쯤 전 유월절에 그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 그들의 식사는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사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구절에 비추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은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겼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하나로 묶여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동일한 사명을 향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짓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는 조작된 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은 가룟유다를 대신해 그 증인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때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음을 깊이 느끼며, 그들은 온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했으며,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있는 증인들로 변모했습니다. 베드로가 본문 32절에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선포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참회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참회’는 도덕적 가치판단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도덕적 자기반성을 말합니다. 한편 ‘회개’는 그런 도덕적 반성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영악하게 계산해서 가던 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나서 내 유익을 위해 즉각 돌이키는 행동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한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기던 길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길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확신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삼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예루살렘교회는 120문도에서 3천명 이상의 대형회중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교인수 많은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목격한 대중들은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도자들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교우가 함께 가족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자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성만찬이 자주 이루어졌고, 이후 그것은 교우들간의 즐거운 식사교제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으로부터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교회 밖으로부터는 칭찬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 다시 말해서 거의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떻게 그처럼 ‘좋은 교회,’ 즉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서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4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교회의 초신자들이 성령충만을 위해 밟아나갔던 길이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밟아나갔던 길과 똑같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충만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기경한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토양 위에 마치 때가 되어 내리는 은혜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꼬빌리시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우리 교우들의 성령충만을 돕는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까지 우리에게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영역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새벽묵상을 보내드리는 일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치유와 연합이 일어나게 하는 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갈망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 성령충만을 위해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수고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40일씩 혹은 열흘씩 고도로 집중된 성경공부에 참여할 형편이 못된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내리길 기다리며 여러분 속에 말씀의 연료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중에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주중에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그 영향을 받는데는 얼마간의 농축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특히 요즘처럼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가만히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엄청난 자기부인을 요하는 일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성령충만을 위한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입니까?

성도간에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교우들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예배나 구역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공동체적 차원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급적 예배나 교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성령충만의 진원지이며, 거기서 우리의 영성은 살아나게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 경험상 기도는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따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지 않으면 못 합니다. 저는 그래도 매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매주 목요일 자율기도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매일 새벽묵상 기도제목을 적어보내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관한 한, 여러분은 저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성령 안에서 생각날 때마다 호흡처럼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수고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바꾸어놓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충만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하실 것입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수고를 함께해나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성령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되어 주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